

내년 4월 11일 실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전망

송훈석 의원 당적보유 여부 최대 변수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인선 분수령 ... 현재 송훈석·안종복·정문헌·이동기·손문영 5파전 양상

벌써부터 열기 후끈

내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성군을 비롯한 설악권이 벌써부터 총선 분위기에 휩싸여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설악권이 1년 이상이나 남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우선 공석이 된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인선 문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내년 국회의원 공천에서 다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모한 정문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안종복 인천유나이티드 FC 사장간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

이에 뒤질세라 4선을 노리는



무소속 송훈석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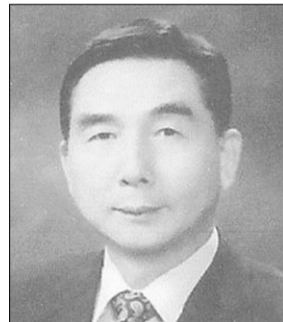
안종복 인천유나이티드FC사장



정문헌 전 청와대 비서관



민주당 이동기 지역위원장



손문영 현대건설 전무

현재 송훈석 국회의원도 서울과 지역을 오르내리며 꾸준히 주민들과 교감하면서 표심 챙기기에 힘쓰고 있으며, 세번째 도선에 나서는 민주당 이동기 당협위원장도 3개 시군을 돌며 잔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재 정당 가입을 하지 않은 손문영 현대건설 전무가 한나라당 공천 경쟁에 직접 뛰어들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두 5명이 활

동에 나서다보니 조기 과열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과열 양상의 분수령은 역시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당협위원장 선출자가 곧 있을 도지사 선거를 준비해야 하고, 총선 후에는 곧바로 대선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천을 무난히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당협위원장은 임명되지 않더라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실시되는 공천 경쟁에는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설부른 판단을 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별도로 전체 선거 판도에 송훈석 의원의 당적 보유 여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일부 언론에서 거론된 송의원에 대한 정당 리브럴설에 대해 송의원은 현재까

지 '고심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특별한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4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송훈석 의원과 이에 맞서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민주당 이동기 당협위원장, 그리고 한나라당 공천 확정자간의 3파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광호 기자

입지자 5명이 밝힌 본인장점·최근 활동성과·앞으로의 활동계획

“설악권 발전 위해 발로 뛰겠다” 한 목소리

무소속 송훈석 국회의원은 본인의 장점으로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인정받았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 예산확보에 앞장섰다는 점을 들었다.

최근 활동성과로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확대 토대를 마련했으며, 고성군 LNG(액화천연가스)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에 촉구하고 긴밀히 협의해 성사시킨 점을 꼽았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으로는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추진과 접경지역지원법 통과 및 국회 의정연수원 부지확정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종복 인천유나이티드 FC 사장은 본인의 장점으로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전문경영인으로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흑자운명을 달성해 한국 프로스포츠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을 들었다.

최근 활동 성과로는 지역스포츠발전을 위해 김주성 은퇴경기, 강원FC 창단 기념경기 등을 유치해왔으며, 학교 축구팀 용품지원 및 유망선수 육성에 힘써왔다고 소개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으로는 속초-고성-양양을 스포츠 메카로 발전시켜 차별화된 설악권, 독특한 설악권을 통해 4계절 전천후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문헌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본인의 장점으로 17대 국회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국정경험과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 고향발전에 올인할 각오가 세워진 점을 들었다.

최근 활동 성과로는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선정을 위한 면접 등 공식 절차를 밟고 있으며, 19대 총선에 대비해 지역구 조직과 역량을 복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으로는 항상 겸손·검소한 마음과 경청하는 자세로 주민밀착형 리더십을 선보이면서, 대한민국 발전과 지역발전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동기 속초-고성-양양지역위원장은 본인의 장점으로 지역에서 나서 배우고 자란 생활정치인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삶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들었다.

최근 활동 성과로는 지난 10월 민주당 제2기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2012년 총선과 대선대비 조직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으로는 4.27 도지사 보궐선거와 양양군수 보궐선거의 필승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2014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인재발굴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손문영 현대건설 전무는 본인의 장점으로 36년간 현대건설에서 산업역군으로 근무하며 우리나라의 근대화 및 산업화 발전에 토대를 마련하는데 평생을 바쳐왔다는 점을 들었다.

최근 활동성과로는 재경속초시민회 회장에 연임돼 설악권 주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활동을 펼쳐왔으며, 고향인 설악권에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자 열심히 발로 뛰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으로는 짧은 1년의 설계가 미래 설악권의 희망찬 100년을 담보하도록 주민들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획기적인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이름	송훈석	안종복	정문헌	이동기	손문영
나이	61세(1950년 10월 8일생)	55세(1956년 3월 12일생)	45세(1966년 5월 4일생)	37세(1974년 7월 4일생)	60세(1952년 1월 17일생)
출신지	고성군	속초시	고성군	속초시	속초시
정당	무소속	한나라당	한나라당	민주당	무소속
학력	오호초, 동광중, 경동고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속초초, 속초중, 경신고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북고, 미국 위스콘신대 정치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영랑초, 설악중, 설악고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정치학석사)	청호초, 속초중, 속초고 졸업 동국대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재단법인 운봉장학회 이사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대우로얄 프로축구단 단장, 한국프로축구연맹 단장협의회 회장, 한나라당 총재특보	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청와대 통일비서관	속초고성양양반부패국민연대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민원담당), 17~18대 국회의원 출마	금강산·경의선 남북철도연결공사 소장, 재경속초시민회장, 강원도민회 부회장
현직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주)인천유나이티드 FC 대표이사	유암문화재단 이사장	민주당 속초-고성-양양 지역위원장	현대건설 전무